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 연구

김 현 수*

목 차

요약	3.3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공리
1. 서론	4.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
2. 현대경제사회와 금융시스템	4.1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조
2.1 현대 시스템의 특성과 본질	4.2 새로운 금융시스템 운용모델
2.2 현재 금융 관련 시스템 문제 분석	4.3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현방안
3.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요건	5. 토의 및 과제
3.1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필요조건	References
3.2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충분조건	Abstract

요약

본 연구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금융시스템 디자인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는 끊임없는 위기를 맞고 이를 극복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경제위기나 바이러스에 의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양극화의 심화는 공동체로서의 인류사회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인간의 삶과, 인류사회의 유지 방식 관점에서 중요한 금융 관련 시스템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양극화의 심화를 방지하고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화폐 금융과 지속가능한 사회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장기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의 조건은 양극화 심화 등 현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하며, 현대경제사회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삶의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기반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성장과 평등 등 핵심 가치를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바탕을 두어야 하는 기본 공리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스템은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으로 명명하였다. 금융과 돈에 관하여 사회와 개인에게 필요한 두 방향이 서로 팽팽한 대립면을 공유하며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시민이 행복한 안정된 사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의 구조와 구체적인 운용모델 및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모델을 구체화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표제어: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 서비스철학, 자본주의, 화폐

접수일(2022년 3월 4일), 수정일(1차:2022년 3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30일)

* 국민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hskim@kookmin.ac.kr

1. 서론

현대 인간의 삶에서 돈(재화/재산 통칭)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경제시스템으로 채택하면서 삶에서 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채택하면서 돈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돈이 권력이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선거로 선출되는 권력이 돈에 의지하거나 돈을 통하여 권력을 창출 또는 유지하기 쉽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평등화된 사회지만, 돈 측면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1인 1표 민주주의 제도나, 선출직 공직자 비중이 확대되며 표면적으로는 평등한 사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부자들에게 경제력이 집중되고 서민의 삶이 상대적으로 힘들어지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를 맞거나, 바이러스 등 사회 위기가 올 때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은 크게 상승되고, 민생 경제는 악화되어 자산가와 비자산가 간의 양극화는 심화되어 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설계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 근본 원인 중의 하나가 돈에 관련된 시스템의 문제로 분석된다. 즉 광의의 금융 관련 시스템이 개선되면 상당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금본위제를 포기한 화폐제도의 문제, 공급자 중심 금융시스템 문제, 사회제도와 유리된 금융시스템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고대 스파르타에서 리쿠르고스가 금은을 회수하고, 철로 무거운 큰 돈을 만들어서 돈의 유지를 어렵게 하여 돈을 많이 가지려는 욕구를 제한하게 한 것(Plutarchos, 2019)이나, 고대 중국 진나라의 상앙이 귀족들이 돈이 있어도 전쟁에서의 공로 등 사회적 기여가 없으면 그 돈을 사용하여 소비하는 것을 못하게 한 것(Jang, 2019) 등의 사례는 화폐 금융 관련 광의의 금융시스템이 사회 발전과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전쟁에의 참여 등 사회에 대한 기여나, 생산을 위한 노동 등 사회 차원의 건전한 노력이나, 사업을 일으키는 등의 창의적 활동 등에 의한 돈의 획득만을 사용가능한 돈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 안정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과도하게 불건전한 경제 활동으로 획득된 돈을 제약 없이 쓰는 행위 등이 규제되어야 창의적 활동이나 건전한 생산적 노동이 사회 내에서 가치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경제적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며, 건전한 투자와 과도한 투기 활동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투기 활동도 위험을 수반하는 창의적 노력이다. 창의적 노력과 과도한 투기 정도는 엄격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하여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활동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창의적인 노력을 억제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하고, 반대로 비상식적인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투기적 활동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한을 해야 성실한 노동이 가치를 높게 가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투기적 활동에 대해 적절한 규제도 필요한 것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중심인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 종합적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도덕성 및 사회기여 정도와 돈이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건전한 노력만으로도 일반시민들이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시스템이 될 수 있어야 사회 안정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너무 과도한 규제도 적절하지 않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너무 과도한 자유도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정부나 정치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재량적 화폐 공급 증대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가상화폐 등이 추구하는 제한된 화폐시스템으로의 회귀도 위기극복 능력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과 돈에 관하여 사회와 개인에게 필요한 두 방향이 팽팽한 대립면을 공유하며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시민이 행복

한 안정된 사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철학에 기반한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으로 명명한다. 여기에는 화폐제도와 사회제도를 포함한다.

제 2 장에서는 현대경제사회의 상황을 분석하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의 금융과 삶 측면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문제들과 관련된 동양과 서양의 역사적 사례들을 분석하여, 타당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금융 및 사회시스템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인류의 공통원리를 인류사회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성공원리로서 제시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기반 공리를 제시하였다.

제 4 장에서는 공리에 기반하여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을 제시하였다. 새 시스템은 서비스주의로 명명되었다.

제 5 장에서는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토의를 수행하고 후속 과제를 논의하였다.

2. 현대경제사회와 금융시스템

새로운 금융시스템은 현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아래 그림 <Fig.2-1>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새 시스템을 도출하였다. 즉 현 인류사회의 주류 시스템인 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과거 인류사회의 관련 문제점과 역사적 사례들을 분석하여 새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였다. 인류사회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므로, 인류사회와 우주의 공통원리를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인간과 세계의 공통원리를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기반을 두어야 하는 기본 공리로서 제시하였다. 이 공리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금융시스템을 서비스주의로 명명하고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도출 프로세스를 도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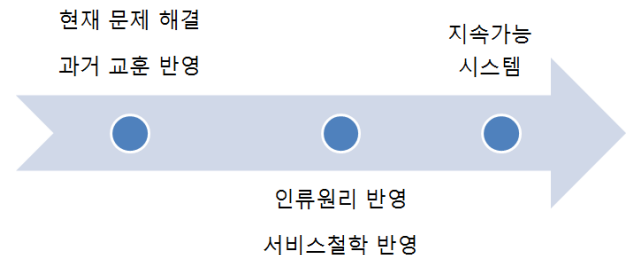


Fig.2-1. A Process of Building a New Financial System

2.1 현대 시스템의 특성과 본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현대의 주류 시스템이다. 정치적으로 일반 시민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가 주류시스템이고, 경제적으로는 자유로운 재화의 교환과 자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본주의가 주류시스템이다.

기존연구(Kim, 2021d)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본주의시스템은 자유의 대가로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개인의 이기심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고, 행운에 의한 결과를 충분히 인정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시스템이므로 경제사회가 성숙되고 시간이 경과될수록 불평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마천의 ‘천하 사람들이 즐겁게 오고 가는 것은 모두 이익 때문이며, 천하 사람들이 어지럽게 오고 가는 것도 모두 이익 때문이다’ (Samachun, 2017)라는 통찰처럼, 본디 인간은 이익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 이익 추구 본성을 최대한 자유롭게 발휘하도록 보장하고 있고 (The School of Life, 2016; Smith, 2007), 법제도가

개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작기 때문에 (Radbruch, 1985), 현대 경제사회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칼 마르크스가 간파하였듯이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는 자본의 힘이 강력해져서 대다수 인간에게 노동의 소외가 나타날 수 있다(Marx, 2015). 자본주의는 자본이 중심이 되므로, 생산성 향상과 자본의 축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 개인은 소외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마르크스는 자본의 축적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이 통제되고 자본가의 이익은 늘어나서 노동의 대가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자본가들이 더 큰 이윤을 내기 위해 투기가 만연하게 되어 자본주의는 불안정한 시스템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본의 힘이 노동보다 강하고, 돈의 힘과 노력의 힘이 불균형인 사회가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Fig.2-2>와 같이, 노력과 보상 간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는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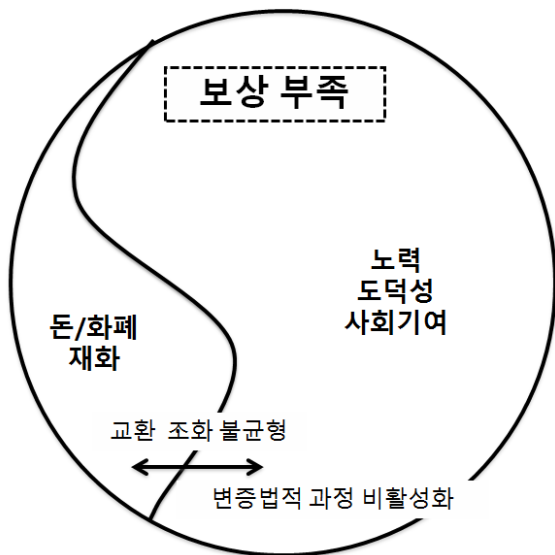


Fig.2-2. The Effort and Reward Imbalance

또한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일반 시민이 주권자 이기는 하지만, 대다수 국가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대의제하에서는 선거로 선출된 권력자들이 임기 동안 유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정치 행정을 하게 되는데,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의해, 자기 절제력과 도덕성이 매우 높은 공직자가 아닌 대다수 권력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기 쉽다. 더구나 현대 경제사회에서는 언론과 권력이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일반 시민은 대체로 피해자가 되기 쉬운 상황이다(Kim, 2021c). 권력자가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중의 환심을 사는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돈을 대중에게 지급하는 방법이다. 세금을 사용하든, 중앙은행의 발권시스템을 이용하든, 권력자는 대중의 부분적 동의를 얻어 대중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권력자의 이익 편취 활동은 활성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경제위기나 바이러스 위기 등이 계속 나타나므로 권력자가 돈을 대중에게 지급할 명분은 계속 확보 가능하게 되고, 세수가 부족해지면 발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돈이 넘쳐나게 될 수 있다. 자산 가격은 크게 오르며 자산가와 비자산가 사이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주식가격은 기업의 영업이익과 미래 성장성 등에 의한 기준 가격이 있지만, 화폐 유동성과 투기심리, 정보의 비대칭 등에 의해 크게 등락을 거듭하는데, 정보를 획득하는데 유리하고 자금력을 가진 계층이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며, 따라서 주식시장이 발달한 나라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진다(Kim, 2014).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의 경우에도 마르크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Marx, 2015) 소유자의 가장 급속한 치부를 위해 자산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가된 유동성을 활용하여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화폐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행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자본주의시스템

하에서 화폐의 지속적인 공급은 자산가와 비자산가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더 근본적으로는 성실히 직장에서 사회에 기여하며 노력하는 대다수 시민들과 소수 엘리트 계층 간의 전도된 질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사회 공동체의 유지에 필수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 계층이 사회의 비 필수 활동 시민들의 지배를 받는 전도된 질서가 나타날 수 있다. 노동과 일의 의미가 쇠퇴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며 심리적 타격을 받는 시민 계층이 증가하며 사회체제가 붕괴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자본주의하의 화폐금융시스템에서는 본인의 사회기여 노력보다는, 보유한 자산이나 비대칭 정보에 의한 불건전한 과도한 투기 활동이나 과도한 상속 증여 등에 의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래 그림 <Fig.2-3>과 같이 사회공동체 내에 보상 과잉 집단이 형성될 수 있다.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정도나 근로자로서 생산활동에 이바지하여 획득한 적정한 보상보다 훨씬 큰 보상에 해당하는 돈을 보유한 집단이 크게 형성될 수 있으며, 노력과 보상 간의 불균형은 계속 심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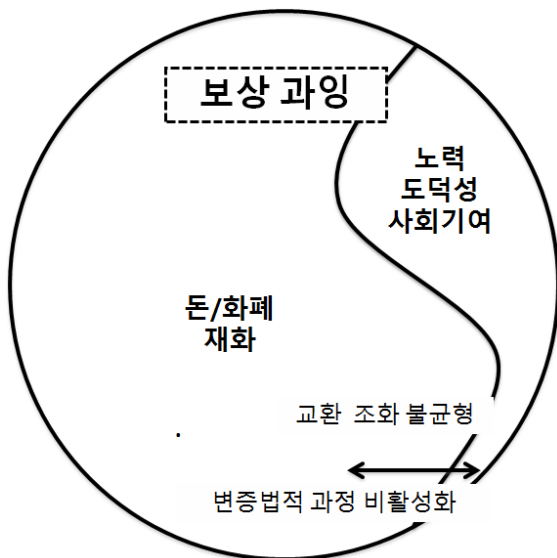


Fig.2-3. The Excessive Reward for Effort

앞서 제시한 보상 부족 집단과 보상 과잉 집단 간의 심한 불균형은 일반 시민들의 노동과 사회기여에 대한 의욕을 감퇴시키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공동체의 붕괴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초기에는 보상 과잉 집단의 일탈이 진행되는 상층부에서의 와해가 일어나고, 후기에는 보상 부족 집단이 붕기하거나 사회를 포기하는 저변 기반에서의 토붕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

현대사회는 기존 사회와 시간, 공간, 인간 차원에서 확연히 다르다(Kim, 2019a). 실시간 경제사회, 초연결 글로벌 공간, 주체적 인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리터러시 증대로 개인의 주도적 역할이 증대되어 와해와 토붕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도 있다. 돈이 개인의 행복 추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사회는 더욱 불안정하게 될 수 있다.

2.2 현재 금융 관련 시스템 문제 분석

현대의 경제시스템과 정치행정시스템은 금융시스템 기반위에서 작동되기도 하고, 또 금융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한다.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자들, 그리고 행정부 및 의회의 정치 권력자들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심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가 금융시스템 정상 작동의 핵심이다. 이기심에 흔들려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경제가 악화되고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증가하게 된다. 노력과 보상의 정도가 서로 상응하는 경제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불일치가 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금융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시민의 사회에서의 노력과 그에 대한 사회의 보상은 항상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도 마찬가지다. 금융수요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수요하고, 공급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공급해야 한다. 공급이나 수요의 일탈이 심화되면 사회는 토붕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 관련시스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도덕성 간의 균형성 부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권한과 영향력이 큰 업무는 그만큼 큰 도덕성 조건이 요구된다. 일반 업무는 일반적인 수준의 도덕성이, 권한과 영향력이 큰 업무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도덕성의 대칭 균형성이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대다수 사회에서는 권한과 영향력 큰 금융시스템 업무에 투입 또는 선출되는 인력에도 일반 업무에 투입 또는 선출되는 인력과 유사한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업무 수행에 대한 일탈 방지 규정이 좀 더 엄격할 뿐, 선발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공직자 윤리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 관련 인력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계속 확대되어 온 것을 볼 때, 중앙은행이나 행정부를 포함하여 금융 관련 업무 인력의 본성에 대한 가정이 그동안 성선설에 중심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성악설에 중심을 둔 금융시스템이었다면, 금융인력의 권한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지속적인 금융위기 위협이 경고되고 있는 것은 금융 관련 인력의 권한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비대칭 불균형 상태를 그림으로 도시하면 아래 태극 그림 <Fig.2-4>와 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인간의 본성이 착하고 양심적이라, 사회를 위해 주어진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할 것이라는 성선설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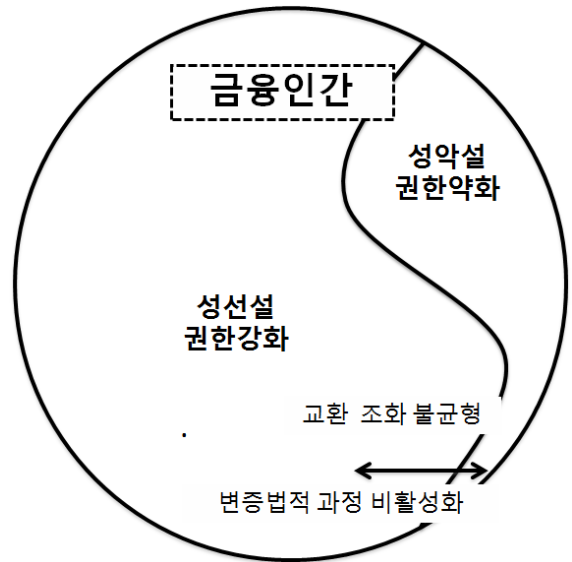


Fig.2-4. Assumptions Imbalance in Human Nature

재(才)와 덕(德)의 불균형 문제는 동양 사상에서 중요한 주제다.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는,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선임하거나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양고전 자치통감의 주제도 ‘재가 덕을 넘어서면 파국을 초래’ 한다는 것이다 (Jang, 2019). 즉 재주가 필요한 자리는 덕이 재주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선출해야 시스템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시스템 관련 업무는 매우 큰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다. 국가사회가 규모가 커지고 업무도 복잡해졌고, 전체 인류사회가 하나의 경제권이 되면서, 국제 업무도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요구되는 능력 수준이 높은 만큼 요구되는 도덕성 수준이 매우 높은 업무가 금융시스템 관련 업무다. 일반적으로 직무 수행 관련 규정을 활용하여 추가 통제를 하고 있는 하지만, 이는 업무 성격에 관련되는 통제라고 할 수 있고, 선출이나 임용시에 본질적인 높은 도덕성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현재의 금융시스템 유관 인력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이에 상응하는 도덕성 요구 간의 비대칭 불균형 상태를 그림으로 도시하면 아래 그림 <Fig.2-5>와 같이 기울어

진 운동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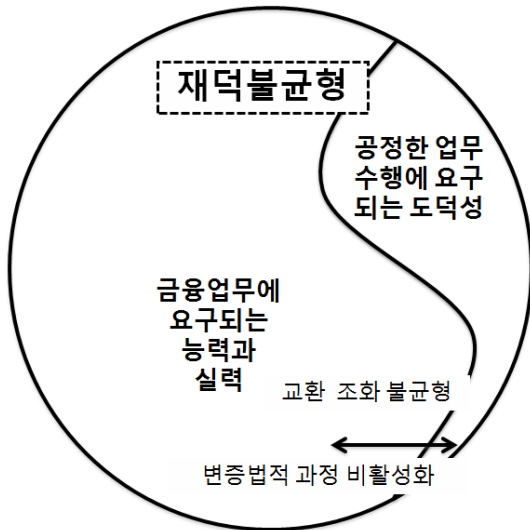


Fig.2-5. Imbalance between Talent and Virtue

이와 같은 상황들이 금융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미쳐서, 현재의 금융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거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은 수익성을 추구하며 확장되고 있고, 금융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확장되고 있고, 금융은 경제의 성장을 위해 확장되고 있다. 금융이 사회구성원 전체의 공존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고, 인류가 생존을 영위하는 토대인 자연과 인간의 삶을 조화시키는 노력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고, 인간의 총체적인 행복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본질적 의미에서 금융의 공급자 중심 문제, 일반시민의 노력과 보상 간의 불일치 문제, 시민 행복을 위한 금융과 정치와의 관계 고려 부족 문제, 금융의 사회안정시스템 연계 부족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대 금융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재의 금융시스템 관련 구조적 불균형 상태를 그림으로 도시하면 아래 태극 그림 <Fig.2-6>과 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Fig.2-6. The Imbalance of Current Financial System

물론, 돈의 근본 속성 중의 하나가 확장 추구하고, 기업 등이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금융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 내 행복의 총량이 극대화되기 위해 적절한 균형과 절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불균형이 적절한 수준으로 낮아져서 사회 구성원 간의 행복 수준이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요건을 아래에 제시한다.

3.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요건

새로운 금융시스템은 현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아래에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제시한 후 기본 공리를 도출한다.

3.1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필요조건

새로운 금융시스템은 현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

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라는 현대 주류 시스템이 미래에는 변화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인류의 미래 차원에서 금융 관련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기도 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바람직한 해결책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동양과 서양의 대표적인 역사서를 통해 그 해결책을 분석해본다. 먼저 서양의 경우, 고대 스파르타에서 금융 관련한 장기 지속가능한 사회 사례를 볼 수 있다. B.C. 9세기경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스파르타에서는 리쿠르고스(Lycurgus)가 500년 이상 지속한 사회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그는 시민들이 오직 용기와 덕에 의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토지재분배 정책과 함께 시민들의 탐욕을 억제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다. 금화와 은화를 거두어들이고 쇠돈만을 쓰게 하였다. 쇠돈은 부피가 크고 무거웠지만 가치는 낮았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자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범죄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부피가 많은 돈을 숨겨 놓을 수도 없었고, 많이 가졌다고 남들이 부러워하지도 않았다. 또 이 돈은 별정계 달군 쇠에다 초를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돈을 깨뜨려 다른 물건을 만들 수도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런 돈을 훔치거나 뇌물로 쓰지 않게 되었다(Plutarchos, 2019).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사회 안정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또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지 시사해주는 사례다. 현대 경제사회에서는 가벼운 지폐가 쉽게 유통되고 있고, 더구나, 큰 돈은 전자적으로 표시되고 거래되고 있다. 인간이 탐욕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금융시스템이다. 돈에 관한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 화폐 시스템의 인간 탐욕 제어 기능 부재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고대 스파르타에 서처럼 현금 쇠돈 등으로만 유통시키면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다. 하지만 탐욕을 적정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디자인도 필요하다.

고대 동양의 경우, 중국 진나라에서 B.C. 4세기에 상앙이 진나라를 강국으로 만드는 변법을 추진하였다. 이때 평민이 국가 기여를 통하여 귀족으로 신분 상승하는 길을 열어주고, 귀족도 나라에 대한 공헌이 없으면 귀족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귀족 출신이어도 전쟁에서 공을 세우지 못하면 그 호적이 왕의 족보에 포함될 수 없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받는 대우는 순전히 그 사람의 작위에 따라 결정되는데, 스무 등급에 달하는 작위는 오로지 전쟁에서 거둔 전공에 근거해서 결정되었다. 작위에 따라 살 집과 입을 옷, 부리는 하인 등 모든 조건이 정해졌다. 이 때문에 전공이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반면, 전공이 없으면 설령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었다. 왕족이라 할지라도 전공이 없으면 왕족 행세를 할 수 없었고, 평민이라 할지라도 전공을 세우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다(Jang, 2019). 현대 경제사회의 자유로운 돈의 사용 관점에서 보면 매우 제약이 큰 시스템이지만, 현대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통찰력을 제공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부의 축적 과정이 중요하고, 돈을 쓰는 데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의 축적 과정이 사회 기여가 있는 방식이어야 하고, 공동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며, 사회적 기여 활동으로 축적한 재산이 아니면 그 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도록 국가가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제도가 기본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 사례는 현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부를 축적하는 과정상의 도덕성 및 사회기여 정도에 무관하게 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할 경우의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범죄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비노동에 의해 획득된 재산에 비하여, 성실한 노동 또는 창의적인 경영활동으로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획득한 재산은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가치의 차이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재산 축적 과정의 도덕성과 사회 기여 정도에 대해 제도적으로 무관심하다면 부도덕한 방법 또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획득하려는 욕구가 더욱 강해지게 될 것이고, 사회는 점점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간의 탐욕 추구에 대한 제약 없음’ 과 ‘재산 축적 과정에서의 도덕성 및 사회기여 의무 없음’ 으로 인한 문제를 금융시스템 디자인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위기 상황마다 크게 금융을 공급하는 현 금융시스템에서는 자산가와 비자산가 간의 격차가 계속 확대된다. 더구나 비자산가 시민들은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을 하는 계층들인 경우가 대다수여서, 집단 간의 불평등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결국 사회는 토붕의 과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기존 연구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와 결합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자본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치행정 권력과 언론을 장악하는 경향이 있고, 자본에 장악된 정치행정권력과 언론은 자본을 위해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Kim, 2021a; 2021b; 2021c; 2021d). 새로운 금융시스템은 이러한 위험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필요가 있다.

애덤스미스가 그의 저서 도덕감정론에서 ‘사의 추구 본성’ 과 ‘공감 본성’ 은 모두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하였는데(Butler, 2018; Smith, 2018), 현재 금융시스템은 사의추구 본성이 크게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고, 공감 본성은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금융시스템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바로잡아 사의 추구 본성 만큼 공감 본성이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하고, 스미스가 제시한 ‘사회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프루던스(prudence: 신중)와 정의(justice)’ 를 견고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현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은 인간의 탐욕을 적정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성실하게 노력하여 그 보상으로 삶을 영위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심리적 상실감과 상대적 경제적 박탈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일 필요가 있다. 즉 인간의 비이성적인 과도한 탐욕 추구 방지,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 성실한 시민들의 심적 물질 차원의 안정된 삶의 보장에 기여하는 금융시스템이 디자인될 필요가 있다.

3.2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충분조건

새로운 금융시스템으로서의 충분조건은 장기 지속가능성이다. 안정적으로 장기간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사상적 기반, 구조적 기반, 운용적 기반이 인류사회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해온 공통원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인간이 운영하는 금융시스템이므로 인간 세상의 공통원리와 부합해야 장구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될 서비스경제시대의 기반철학인 서비스철학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라야 현대 사회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다.

우주의 지속성 원리, 우주 내 생명과 인간의 원리, 오랜시간 변함없는 인류사회의 공통원리 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충분조건으로 반영한다.

장기간 변함없는 세상의 공통 원리는 인류대표사상, 우주론, 생명론, 문명론, 예술론 등을 분석하여 도출되었다(Kim, 2019a).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환경인 우주의 원리, 인간 등 생명의 공통원리, 인류의 지혜인 대표사상 등의 공통원리는 비유비무(非有非無)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파니샤드의 브라흐만 설명개념인 neti, neti론(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역과 원자물리학의 태극상보론, 주역의 음양

대대원리, 상반상성론, 동서양 공통철학인 변증법사상 등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절대불변인 하나의 진리는 없는 것이고, 대립자들이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해가는 것이 세상의 공통원리라고 할 수 있다(Kim, 2020; 2019a; 2019b; 2019c; 2019d). 이러한 공통 원리, 즉 세상의 진리를 반영한 현대의 철학은, 현대 서비스경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서비스철학의 구조와 동일하다.

공통원리에 의해 대립존재 및 대립개념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과 동태적 균형이 궁극의 진리, 도(道)가 된다. 대립 존재 및 대립 개념 간의 이해관계 현상이 세상의 모습이고 인간 삶의 현실이다. 대립자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이 지속성과 생명의 원리이고, 이것이 없으면 사회나 경제, 생명은 죽음으로 향해 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이 태극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두 개의 상반되는 개념 또는 대립자를 정의하고, 각각이 뚜렷한 주체성을 가지되, 그 반대 주체가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 반대 측과의 치열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하는 상황을 도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태극 모델이다. 아래 그림 <Fig. 3-1>과 같이 반대자와의 치열한 상호 균형적 활동을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함께 발전해나가는 모델인 것이다(Kim, 2019a).



Fig. 3-1 The Structure of Service Philosophy

위 태극 구조는 시간 축에서 나선형 변증법적 모델 구조를 가진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립자간의 치열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모순을 발견하고 해결해가면서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것이 세상의 진화 진리 모델이다(Kim, 2019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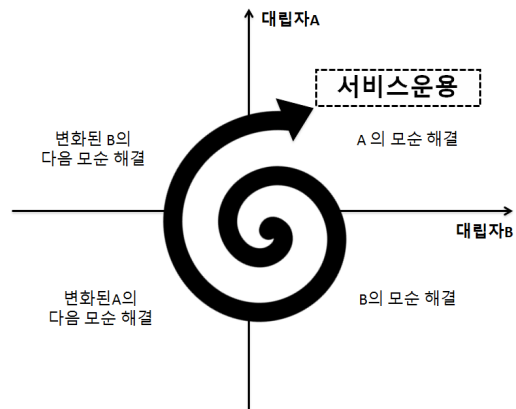


Fig. 3-2 The Flow of Service Philosophy

새로운 금융시스템은 세상 공통원리와 부합하는 서비스철학의 구조와 부합할 때 장기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상 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의 구조를 반영하는 공리를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기반 구조 설계 원리로서 아래에 제시한다.

3.3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공리

새로운 금융시스템은 불변의 공리(axiom)에 기반하여 구축된다. 인류공통원리 기반의 서비스철학에 의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공리는 아래와 같다.

[공리 1]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공간상에서 연결되어 있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류공통사상에

의해 위 공리는 성립한다. 현대 과학기술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사회도 서비스 네트워크 사회가 되면서 위 문장은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로 성립한다(Lamprecht, 1992; Yang, 2012).

[공리 2] 모든 것은 대립자가 있다. 금융시스템의 주체와 객체들에도 제반 대립자가 있다.

인류공통사상에 의해 위 공리는 성립하며, 경제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전제이므로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로 성립한다(Lamprecht, 1992; Lao-Tzu, 1982).

[공리 3] 모든 것은 변한다. 금융시스템의 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

인류공통사상에 의해 위 공리는 성립한다. 주역이나 헤라클레이토스의 고대사상부터 포스트모더니즘 현대사상까지 변치않는 진리이므로, 금융에서도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로 성립한다(Kim, 2019a; 2019b; 2019c; 2019d).

[공리 4] 변화에는 물리학 법칙이 작용한다. 즉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한다.

자연세계의 법칙에 따라 대립자간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균형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즉 관성의 법칙에 따라 균형점을 한동안 벗어난 후에야 반대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 또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한번 상태가 전환되어 속도가 붙으면 가속도가 작용하여 크게 균형점을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큰 힘이 필요할 수 있다.

[공리 5] 인간의 내적 욕망은 무한하다. 인간은 외부에서 제약을 가하지 않는 한 욕망 추구를 멈추지

않는다(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은 무한하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므로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기 어렵고, 인간의 정신은 무한을 추구하므로 욕망에 대해서도 한계를 가지지 않는다. 다만 윤리나 도덕, 법과 제도 등의 외부적 힘에 의해 욕망추구가 제한된다.

[공리 6] 인간사회의 무질서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 외부의 힘이 가해져야 무질서도가 감소할 수 있다.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 고립된 계에서는 엔트로피(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한다. 개방된 계에서는 엔트로피가 줄어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가가 필요하다. 어떤 계의 엔트로피를 줄이려면, 외부에서 그 계에 물리적인 ‘일(work)’을 해 줘야만 한다. 금융시스템에서도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시스템의 무질서도는 계속 증가한다.

이와 같은 공리와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요건에 의해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구조를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세상공통원리인 서비스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으로 명명한다.

4.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

서비스주의는 세상공통원리인 서비스철학에 기반한 모든 사상을 의미한다.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은 서비스철학에 기반을 두고 디자인된 금융시스템을 의미한다. 아래에서 이러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구조, 운용모델, 구현방안을 제시한다.

4.1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조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은 공리에 기반하여 그 구조가 구축된다. [공리 2]에 의해 금융시스템에 두 대립자가 존재하며, [공리 1]에 의해 이 두 대립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금융은 개인이 욕망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해야 하며, 금융을 통해 사회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수익성을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지원하기도 해야 하며, 공동체로서의 사회 유지를 위한 사회성을 강화하기도 해야 한다. 수익성과 사회성은 대립자로 정의된다. 또한 금융시스템은 인간욕망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자연을 개발하거나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금융시스템이기도 해야 하며,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임을 인식하고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여 장기 지속가능할 수 있는 인류의 삶이 되도록 금융시스템이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인간욕망 중심 금융과 자연조화 중심 금융은 두 대립자가 된다. 또 성장과 행복도 두 대립자가 된다.

[공리 3]에 의해 금융시스템의 중심점이 계속 이동 변화한다. 수익성과 인간욕망 및 성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계속 운용하면 불평등이 심해지고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인류 삶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한다. [공리 4]에 의해 변화는 균형점을 넘어가며 진행된다. [공리 5]와 [공리 6]에 의해 외부에서 힘을 가해야 방향을 선회하며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때 서비스철학이 정립된 인류사회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는 시기가 균형점을 벗어나기 직전에 시작된다. 서비스철학에 기반하여 두 대립자간의 철저한 대칭 균형을 유지하려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두 대립자들이 서로 대립면을 공유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며 상호 윈윈을 추구한다. 두 힘이 임계

점 부근에서 균형을 이루며 조화되는데, 이 과정이 시공간에서 변증법적으로 진행된다. 어느 대립자든 자신의 입장이 모순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따라서 반대쪽 입장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두고 있는 모델이다. 서비스주의는 화쟁 모델인 것이다. 상반되는 두 대립자가 서로 다른 돌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다른 측면임을 알고 상호 발전을 위한 과정에서 화와 쟁을 번갈아 사용하는 모델이다. 이러한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은 아래 그림 <Fig. 4-1>과 같이 화쟁태극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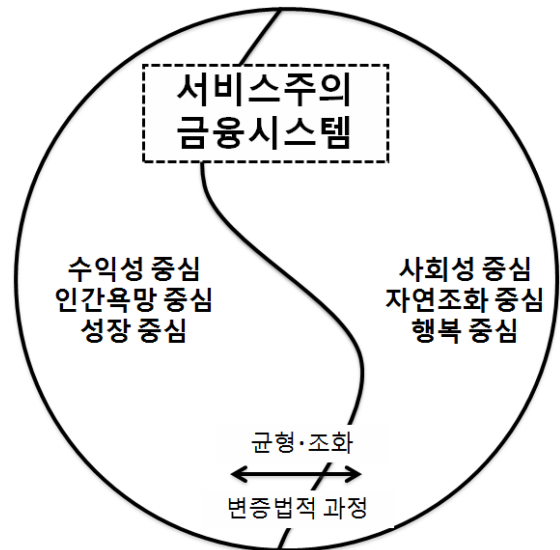


Fig. 4-1 The Servicism on Economy Philosophy

새로운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의 기본 구조는 돈과 노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보상 구조다. 거시적인 금융시스템의 구조를 금융철학, 보상구조, 화폐시스템, 금융인간 차원에서 제시한다.

우선 금융시스템의 저변에는 서비스주의 금융철학이 작동된다. 즉 아래 그림 <Fig. 4-2>와 같이 금융을 통해 자유와 성장을 추구하려는 힘과 금융을 통해 평등과 사회 안정을 추구하려는 힘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금융철학이 금융시스템의 근간이다.

또한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은 획득 재화와 사회

기여가 균형을 이루는 보상 구조다. 사회기여 정도에 따라 재화가 획득되고, 노력한 정도만큼 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불로소득이 최소화되는 구조인 것이고, 사회 기여가 있는 재화만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노력이나 사회 기여가 없이 돈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돈을 사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는 구조다. 그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노력과 사회 기여를 하거나, 또는 비 필수 재화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아래 그림 <Fig. 4-3>과 같이 대칭균형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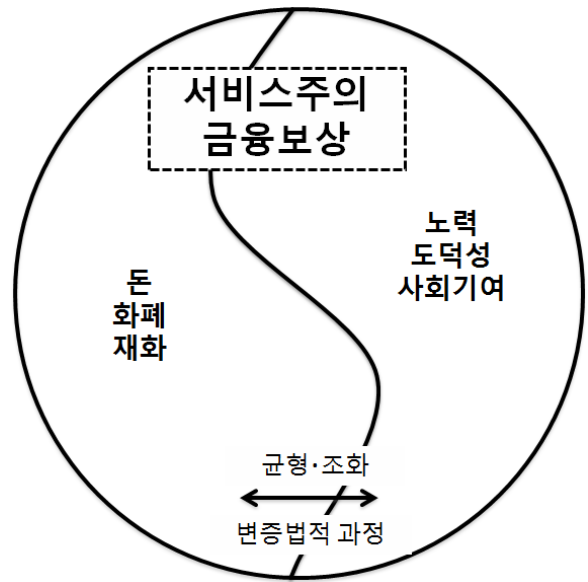


Fig. 4-3 The Servicism Financial Re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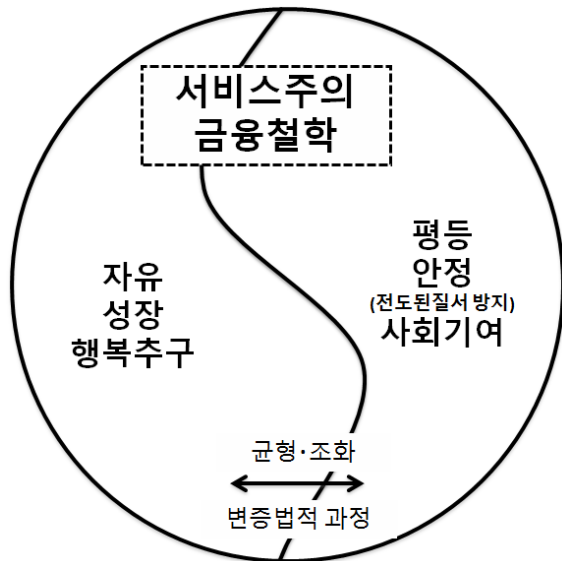


Fig. 4-2 The Servicism Philosophy on Financial System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이 작동되는 사회는 노력과 사회기여가 중심 선(善)이 된다. 사회기여 노력은 노동과 창의적인 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며 도덕성 기반으로 평가되고 인정된다. 서비스철학에 의해 사회에 도덕성이 정립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비록 범죄 행위는 아닐지라도 금융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초과이익을 얻는 행위는 도덕성 기준에 의해 화폐 획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회기여 노력에 상응하는 화폐 획득과 사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 화폐 시스템 구조 변화도 필요하다. 즉 아래 그림 <Fig. 4-4>와 같이 2차원 화폐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사회기여 활동에 의해 획득되는 1종 화폐, 기타 활동에 의해 획득되는 2종 화폐로 구분하여 운용된다.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화폐인 1종 화폐는 제약없이 모든 재화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2종 화폐는 잉여화폐로서 필수 재화 구매 등에 제한이 있는 화폐다. 예를 들어 주택, 생필품 등의 필수 재화 구매에는 1종 재화만을 사용할 수 있다. 사회 기여 활동을 통해서 2종 화폐를 1종 화폐로 사회 기여량만큼 전환 가능하며, 2종 화폐는 애덤 스미스의 바램처럼

병원, 학교 등 공익 관련 투자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필수 재화의 범위는 각 사회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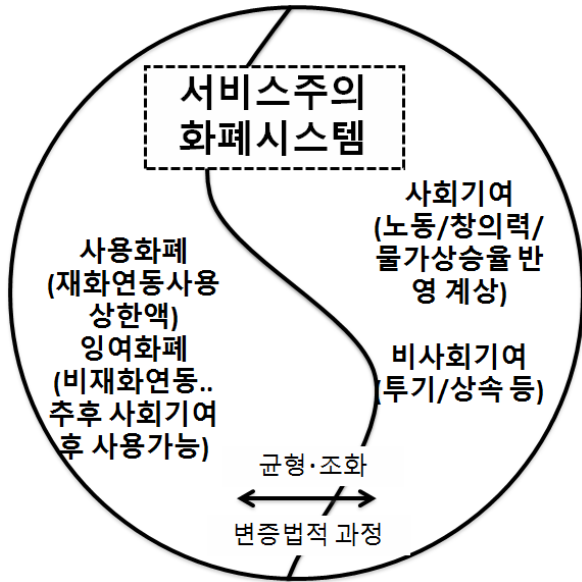


Fig. 4-4 The Servicism Monetary System

또한 서비스주의의 금융인간은 서비스주의 금융 철학을 구현할 수 있고 서비스주의 화폐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인간이어야 한다. 서비스주의의 금융인간은 아래 그림 <Fig. 4-5>와 같은 균형대칭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금융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돈을 사용하는 모든 인간은 그 권한과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성과 양심 수준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 의사결정자나 금융 관련 권력자는 매우 큰 권력이므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인간은 매우 높은 도덕성과 양심 기준을 통과해야 그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 기준을 부과하는 것이다. 일반 시민도 금융에 관련되는 직무를 잠시 위임받아 수행하게 될 때는 평소보다 높은 도덕성과 양심 기준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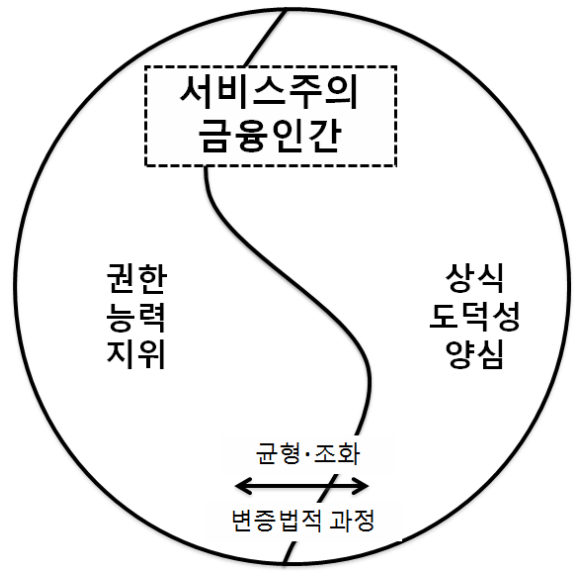


Fig. 4-5 The Servicism on Financial People

이러한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 구조와 앞서 제시한 공리들을 기반으로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의 운용모형을 아래에 제시한다.

4.2 새로운 금융시스템 운용모델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은 두 대립자들의 상호 작용이 변증법적으로 전개되는 모델이다. 변증법적으로 금융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은 아래 그림 <Fig. 4-6>과 같이 나선형 정반합 사이클로 진행된다. 즉 현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자유로운 욕망 추구에 의한 성장주의 지원 금융시스템으로 시작하여 점차 평등과 분배를 강조하게 되는 1/4 분면 사이클에서 시작한다. [공리 5]와 [공리 6]에 의해 개인의 욕망 추구가 증대되면서, 능력이 있고 운이 따라주는 개인과,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운이 따라주지 않는 개인 간의 부의 격차가 나타나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행운과 불운에 의해서도 부의 격차가 심화된다. [공리 3]의 변화 원리와 [공리 4]의 반작용 원리 및 [공리 6]에 의해 균형을 회복하려는 반대쪽

의 힘이 작용한다. 그러나 [공리 4]에 의해 균형점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균형 회복 노력의 결과가 나타난다. 도덕성 회복과 평등 지원이 중심이 되는 금융시스템으로 이전되어 상당기간 진행되는 2/4분면 사이클로 이동한다. 2/4분면에서는 [공리 4] 관성의 법칙에 의해 평등 지원 중심성이 계속 강화되고 개인의 금융 자유가 일정부분 위축되면서 성장도 둔화된다. 1/4분면 사이클에서는 성선설 가정하에, 개인이 재화를 축적하면 애덤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제시한 공감 본성에 의해 교육과 의료 등 사회를 위한 공익 봉사에 상당 부분 사용한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도 지원하고 있는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므로 적정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되는 수준으로 개인적 욕망 추구가 과도해질 수 있다. 이때 성악설 가정하에 과도한 욕망의 추구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2/4분면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과도한 개인적 욕망의 추구를 제한하고 도덕성 존중과 사회기여를 강조하면 사회는 안정되지만 성장이 둔화되어,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삶의 질이 저하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개인의 자유로운 욕망 추구를 강조하는 3/4분면 사이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사이클에서 성장이 회복되고 사회안정성도 유지되는 국면을 상당기간 진행하다가, 다시 [공리 5]에 의해 과도한 욕망 추구로 사회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도덕성과 사회기여를 다시 강조하는 4/4분면 사이클로 전환한다. 성선설을 가정해야 욕망추구가 활발하여 발전하고, 성악설을 가정해야 과도한 욕망추구가 제한되고 안정된 사회가 되므로, 두 대립 국면이 시간경과에 따라 번갈아 나타난다. 상황이 변화하면 다음 변증법적 사이클을 진행한다.

요약하면, 재화 축적과 화폐 사용에 제한이 없는 1/4분면 사이클, 사회기여 노력을 강조하고 화폐 사용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2/4분면 사이클, 이어서 다시 재화 축적과 화폐 사용 제한이 없어지는 3/4분면

사이클, 다시 도덕성과 사회기여를 강조하며 꼭 필요한 제약을 일정부분 부과하는 4/4분면 사이클로 진행하며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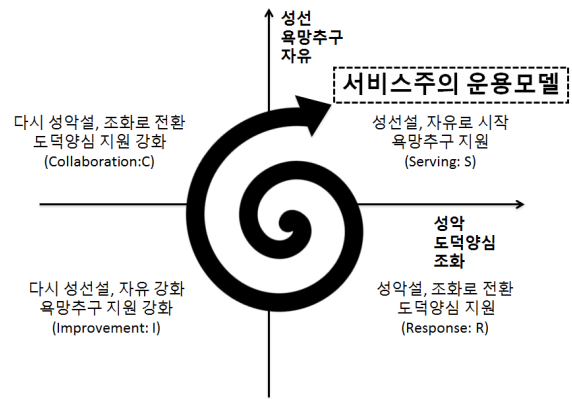


Fig. 4-6 The Servicemism Operation Model

현대 경제사회에서는 두 대립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 보다 절대적으로 우세한 경우는 거의 없다. 외형적으로는 자유주의 금융이지만 내면의 평등주의가 받쳐주고 있는 리베형 시스템이거나, 외형적으로 평등주의 금융이지만 내면은 자유주의가 중심을 잡고 있는 감괘형 금융시스템이 대다수이다. 1/4분면과 3/4분면은 자유주의 중심 금융에서 평등주의 중심 금융으로 전환되는 사이클이고, 2/4분면과 4/4분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전되는 사이클이다. 실제로는 이와 같은 2차원 운용모델에 추가하여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3개의 차원을 더하여 5차원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으로 운용된다.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은 시공간상에서 계속 균형을 유지해가는 모델이다.

4.3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현방안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은 시스템의 복잡성과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불확실성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현하기 어

럽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한계로 인한 비이성성과 이성성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자연의 미시세계 불확정성 원리를 도입하여 인간세계의 비이성성과 욕망이 적절히 통제되는 구조를 구현한다.

서비스주의 구조인 대립면을 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어느 한쪽이 적용되는 시점과 반대쪽이 적용되는 시점을 인공지능이 판단하여 적용한다. 인간이 자연과 시스템 통제 지위를 공유하는 것이다. 즉 현재는 인간이 100% 금융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연의 원리와 통제 권한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구현방안은 자연의 원리를 내장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 <Fig. 4-7>과 같이 ‘자연의 원리’라고 분석된 알고리즘을 내장한 인공지능과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 금융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변증법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자연원리를 대리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설계는 인류의 공통원리를 반영하되, 불확정성이 개입되도록 한다. 즉 인간이 통제할 수 없도록 한다. 인공지능시스템의 판단 및 의사결정 모델은 자연의 원리를 따라 대칭성 조화성 등의 자연원리가 구현된 모델로 설계된다. 시간과 공간차원에서 변증법적으로 자연원리가 구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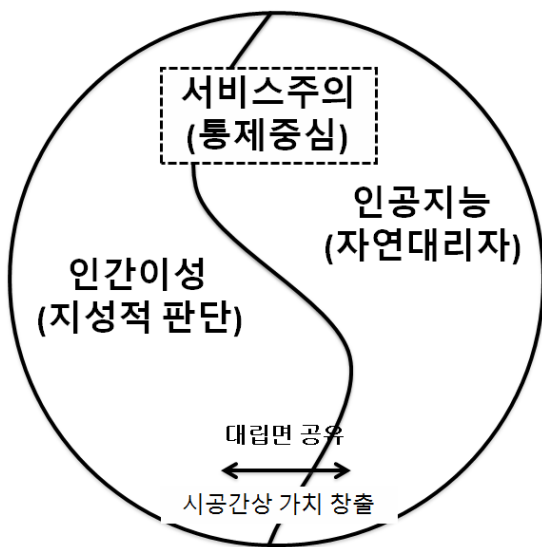


Fig. 4-7 The Servicem Control Model

이와 같이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연과 인간이 통제권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일정부분 자연의 원리를 수용할 때,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일정부분 내재되어 있는 비이성성과 과도한 이기심을 인간 스스로 모두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자연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5. 토의 및 과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인류사회를 위해 필요한 금융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지난 수천년간의 인류사회 운영 경험을 토대로 장기 지속가능발전 모델과 그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고, 이는 돈에 의한 사회 계층화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1인 1표제 대의제 대중민주주의를 채택하면서 돈이 권력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권력자와 자산가들에게 힘이 집중되고 일반 시민의 삶이 상대적으로 힘들어지는 현상은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 특히 경제위기를 맞거나, 바이러스 등 사회 위기가 올 때마다, 자산가와 비자산가 간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모델을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으로 명명하고 금융시스템의 운용과 관련된 화폐제도와 사회제도를 포함하여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사회기여와 관련된 소득과 사회기여와 관련이 적은 소득을 구분하여 화폐와 금융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간 본성에 대한 가정을 성선설과 성악설이 팽

팽하게 균형을 이루는 대칭 관점으로 설정하고, 노력과 보상이 대칭균형을 이루는 금융시스템으로 개선하였다. 인류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이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기반해야 하므로, 공통원리를 반영하여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성장과 평등이 모두 가능하도록 시스템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모델의 구조를 제시하고, 운용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구현방안을 제안하였다. 인간의 근본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인류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지름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였으므로, 향후 본 연구를 구체화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Butler, E. (2018), The Condensed Wealth of Nations and The Incredibly Condensed Theory of Moral Sentiments, Sungkyu Lee Tr., Yulgok Publishing Co. (버틀러(2018), 도덕감정론 및 국부론 요약, 이성규 역, 율곡출판사)
- Jang, Kwukang (2019), Oh, S. H. Tr., JaChiTongGam, Chusubat. (장귀강(2019), 오수현 역, 자치통감, 추수밭)
- Kim, Hyunsoo (2021a),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Legal System,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1, No.4 Dec. 2021, pp.1-20 (김현수(2021a), 서비스주의 법제도 구조와 운용 연구, *서비스연구*, 제11권 제4호, pp.1-20)
- Kim, Hyunsoo (2021b), A Study on the Servicism Based Society System,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1, No.3 Sept. 2021, pp.75-97 (김현수(2021b),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의 구조와 운용 연구, *서비스연구*, 제11권 제3호, pp.75-97)
- Kim, Hyunsoo (2021c),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1, No.2, Jun. 2021, pp.1-19 (김현수(2021c),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 구조와 운용 연구, *서비스연구*, 제11권 제2호, pp.1-19)
- Kim, Hyunsoo (2021d),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Economy System,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1, No.1, Mar. 2021, pp.1-20 (김현수(2021d),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 구조와 운용 연구, *서비스연구*, 제11권 제1호, pp.1-20)
- Kim, Hyunsoo (2020), A Study on the Framework of New Management,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0, No.1, Mar. 2020, pp.1-15 (김현수(2020), 신경영학 프레임워크 연구, *서비스연구*, 제10권 제1호, pp.1-15)
- Kim, Hyunsoo (2019a), A Study on Service Philosophy for New Economy and Societ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4, Dec. 2019, pp.1-17 (김현수(2019a), 신경제사회 중심사상으로서의 서비스철학 연구, *서비스연구*, 제9권 제4호, pp.1-17)
- Kim, Hyunsoo (2019b),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jor Western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3, Sept. 2019, pp.1-16 (김현수(2019b), 서양대표사상의 서비스철학성 연구, *서비스연구*, 제9권 제3호, pp.1-16)
- Kim, Hyunsoo (2019c),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instream Oriental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2, June 2019, pp.1-15 (김현수(2019c), 동양주류사상의 서비스철학성 고찰, *서비스연구*, 제9권 제2호, pp.1-15)
- Kim, Hyunsoo (2019d),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jor Korean Ideology, *Journal of*

-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1, March 2019, pp.1-16 (김현수(2019d), 한국대표사상의 서비스철학성 고찰, *서비스연구*, 제9권 제1호, pp.1-16)
12. Kim, Soohaeng(2014), A Study on The Capital, Dolbaegae (김수행(2014), 자본론 공부, 돌베개)
 13. Lamprecht, S. P.(1992), *Our Philosophical Traditions*, Kim Taegil, etc. Tr., (렘프레히트(1992), 서양철학사, 김태길 등 역, 을유문화사)
 14. Lao-Tzu(1982), *Tao Te Ching*, Ki Keun Chang Tr., Samsung Publishing Co. (노자(1982), 도덕경, 장기근 역, 삼성출판사)
 15. Marx, K(2015). *The Capital Vol. I, II, III*, Soohaeng Kim Tr., Bibong Publishing Co. (마르크스(2015), 자본론 I, II, III,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16. Plutarchos (2019), Lee, S. K. Tr., *Bioi Paralleloi* I, II, Modern Intellect. (플루타르코스(2019), 이성규 역,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전집 I, II, 현대지성)
 17. Radbruch, Gustav(1985), Choi, J. K. Tr., *Rechtsphilosophie*, Samyeongsa. (라드브루흐(1985), 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
 18. Samachun(2017), So, J. S. Tr., *Samachun Saki 56*, Modern Intellect. (사마천(2017), 소준섭 역, 사마천 사기 56, 현대지성)
 19. Smith, A. (2018),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Kwangsu Kim Tr., Hangilsa Publishing Co. (애덤 스미스(2016), 도덕감정론, 김광수 역, 한길사)
 20. Smith, A. (2007), *The Wealth of Nations*, Soohaeng Kim Tr., Bibong Publishing Co. (애덤 스미스(2007), 국부론-개역판,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1. The School of Life(2016), Kim & Oh Tr., *Great Thinkers*, Wiseberry (인생학교(2016), 김한영 & 오윤성 옮김, 위대한사상가, 와이즈베리)
 22. Yang, Haerim(2012),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Jipmundang (양해림(2012), 서양철학사, 집문당)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Financial System

Hyunsoo Kim¹⁾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sign a financial system for the sustainable life of mankind. Human society faces a constant crisis and leads a life while overcoming it. The polarization is intensifying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or crisis caused by the virus. In a society adopting the capitalist economic system, it is a common phenomenon that polarization intensifies with the passage of time, but since the intensification of polarization can destroy human society as a community, active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vent the deepening of polarization by redesigning important financial-related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life and maintenance of human society. Through the history of mankind,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s related to sustainable society have been analyzed, and a financial system model that is ideal for the modern and future society and is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has been derived. The conditions for a long-term sustainable financial system should be a model that can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such as deepening polarization, and a model that is faithful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economic society and the essence of sustainable life. And it can be sustainable only if it is based on the common principles of human society. It should be a model that guarantees core values such as growth and equality that human society demands.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conomic system and analyzing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new system, the basic axioms that the new financial system should be based on were presented, and a desirable model was derived based on this. The structure of the derived model and the specific operation model were presented. In the future, follow-up studies are needed to concrete this model.

Keywords: Servicism, Financial System, Service Philosophy, Capitalism, Money

1)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hskim@kookmin.ac.kr



Hyunsoo Kim is a Professor of Service Management at Kookmin University in Seoul, Korea. He majored in nuclear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isty and acquired Master's degree in management science from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received his Ph.D. degree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with business administration major. Currently he serves as the chairman of the Society of Service Science, and the chairman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ervice Industry as well as the chairperson of

Service Korea Initiative. Based on those experiences and knowledge on Service industry and academia, he devotes himself to the researches on Service Science and Service innovation.